퀀틴전시 플랜

비용에 가로막힌 AI? 진짜 이유는 가치주 로테이션

FICC 리서치부

정해창 / Strategist Jr.
haechang.chung@daishin.com

이경민 / Strategist
kyoungmin.lee@daishin.com

[Key Point] 연이은 미국 기술주 하락, 코스피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

- 전일 나스닥의 표면적 하락 원인은 AMD의 급락(-17%), 전일 실적에서 분기 매출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나 시장의 "초고성장" 기대에는 미달했고, 중국 매출 비중에 대한 의문 제기
-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은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AI 투자 확대 발표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 우려를 자극, 시간 외 거래에서 -2%대 하락을 유발
- 특히 26년 자본지출 가이던스 상단을 1,850억 달러로 제시 예상(1,150억 달러)을 큰 폭으로 상회. 시장은 AI 경쟁 심화 국면에서 막대한 자본 지출이 이익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
- 경쟁 심화의 직접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반도체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모순적, 프로그램 비차익매도 급증과 글로벌 헤지펀드의 IT섹터 비중 축소 또한 무차별적 하락의 원인으로 추정
- **반도체:** 삼성전자(-5.8%), SK하이닉스(-6.4%), 한미반도체(-4.4%), 하나마이크론(-5.3%) 등
- **원전/전력기기:** 두산에너빌리티(-6.1%), HD현대일렉트릭(-5.5%), 대한전선(-5.1%) 등

[Issue 1] 하락의 근본적 원인은 가격 부담과 로테이션, 가치주로 이동하는 자금

- 하락의 근본적 원인은 상승 피로감과 가치주 순환매 국면에서의 차익실현으로 풀이. 코스피의 4% 가까운 급락에도 상승종목이 300종목을 상회
- 내수주(소비재/유통)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전일 미국증시에서도 기술주 하락과 동시에 에너지, 소비재, 금융 등 가치주 섹터는 오히려 상승하는 동일한 흐름 관측
- 지난 주말 연준의장 지명 이후 정책 패러다임 변화 대응 움직임. 유동성에 기대어 미래 수익을 선반영한 고밸류에이션 기업에서 펀더멘털 중심의 가치주 업종 로테이션의 촉매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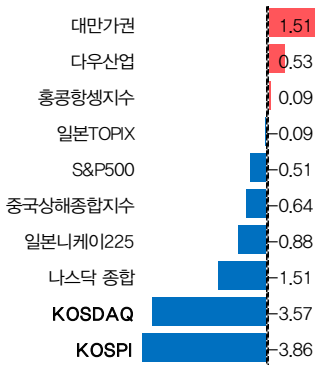
[Issue 2] 가치주 순환매, 시장의 급락 하락에도 견조했던 내수업종

- **유통:** 대형마트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 및 배송 제한 규제가 13년 만에 해제 논의 돌입
  이마트(+9.5%), 호텔신라(+5.0%), 신세계(+2.2%), 롯데쇼핑(+0.6%) 등
- **내수업종:** 중국 춘절 연휴를 앞둔 외국인 인바운드 수요와 한일령 반사수혜, 내수회복 기대 등
  소비재(의류/화장품): 영원무역(+5.8%), 미스토홀딩스(+5.0%), 에이피알(+5.3%), 달바글로벌(+5.8%)
  호텔/레저: 롯데관광개발(+5.4%), GS피앤엘(+10.1%), 파라다이스(+3.5%), 호텔신라(+5.0%)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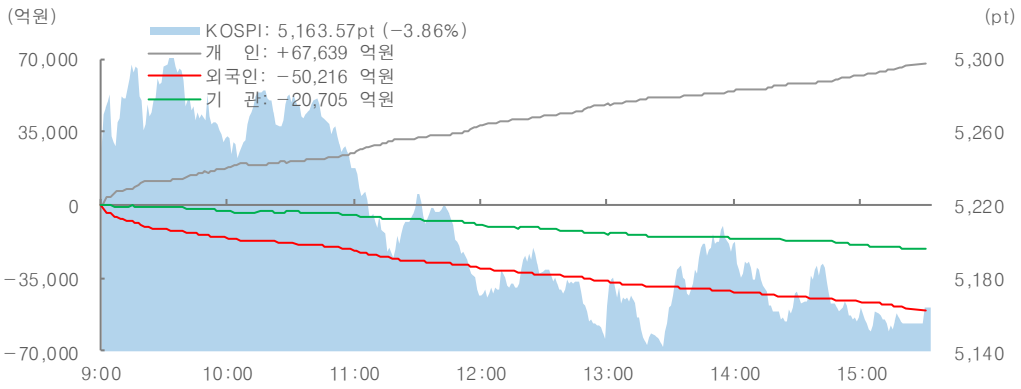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퀀트**, **전**략, **시**황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증시 수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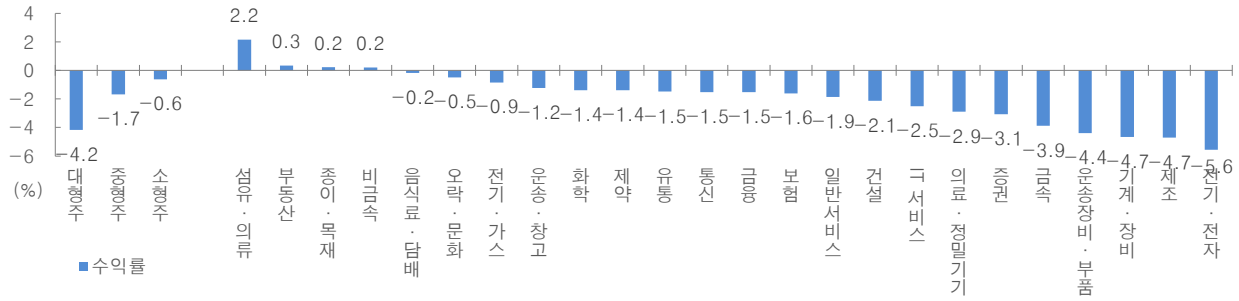
주: 아시아 증시 마감 전 지수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업종별 수익률



업종별 순매수 상대강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순매수 상대강도 = 주체별 순매수금액 / 20 일평균거래대금

KOSPI, 업종별 수익률 추이

주요 지수	전일종가 (p)	1W	1M	3M	6M	12M	YTD
KOSPI	**5,371**	**3.9**	**24.6**	**30.3**	**70.6**	**116.4**	**27.5**
에너지	5,778	8.5	22.2	13.1	45.1	65.4	21.3
화학	5,037	−1.5	16.0	0.4	29.4	51.9	12.6
비철,목재	9,296	1.3	33.6	54.3	74.8	97.0	31.4
철강	2,548	−2.3	19.6	15.7	21.1	48.5	17.4
건설,건축	1,929	4.5	30.2	27.7	28.0	79.6	26.9
기계	11,325	4.6	23.2	6.6	51.6	184.9	26.4
조선	10,146	−0.5	17.8	1.2	32.3	101.6	16.4
상사,자본재	4,824	6.4	35.7	43.7	79.0	209.0	38.9
운송	1,921	2.9	10.3	15.6	9.2	23.2	9.0
자동차	16,487	2.4	39.3	55.6	79.4	91.9	39.1
화장품,의류	5,399	2.5	8.7	6.3	4.4	39.1	10.1
호텔,레저	2,355	7.9	3.8	10.2	5.6	36.8	1.9
미디어,교육	846	−2.1	4.2	5.3	23.5	42.0	7.3
소매(유통)	2,387	9.8	21.2	29.6	26.7	55.4	18.4
필수소비재	7,224	5.5	6.6	5.6	3.4	31.5	6.0
건강관리	11,415	−1.2	4.1	20.4	31.9	30.2	7.9
은행	3,085	6.6	16.0	19.6	29.4	66.0	15.3
증권	3,155	15.6	38.3	36.5	60.0	124.4	40.5
보험	11,765	5.8	14.1	21.9	34.9	62.6	13.3
소프트웨어	7,637	−3.9	4.1	−1.5	9.6	22.9	6.6
IT하드웨어	1,578	5.8	12.0	22.2	79.4	113.6	15.2
반도체	29,101	5.3	32.2	58.0	174.8	263.7	40.1
IT가전	2,317	−2.4	27.4	3.8	48.0	48.5	25.1
디스플레이	705	−4.2	−0.5	−18.1	8.1	22.5	0.0
통신서비스	453	6.7	25.3	29.0	19.2	36.3	23.3
유틸리티	1,772	5.6	32.5	32.1	51.7	132.6	30.6

KOSPI, 업종별 YTD 수익률

기준일: 2026.02.04. / 주: Top 5, Bottom 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정해창,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